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미용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2014년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헤어디자인 전공

지 윤 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신인숙

미용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Beauty and a sense of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s  
prepare for the course and its impact on behaviour and career  
decisions

201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헤어디자인 전공

지 윤 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신인숙

미용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Beauty and a sense of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s  
prepare for the course and its impact on behaviour and career  
decisions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헤어디자인 전공

지 윤 아

지윤아의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 국 문 초 록

## 미용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헤어디자인전공

지 윤 아

본 연구는 미용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그들의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향후 미용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이나 진로결정과 같은 진로의 선택과 만족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개선 방향을 모색 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미용과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가운데 경기도에 소재한 2곳의 미용전공생과 충청도에 소재한 2곳의 미용전공생 1학년, 2학년, 3학년 38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지금의 미용교육은 교육기관의 양적증가에 비해 질적 향상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논제를 정하게 되었다.

교육기관의 미용학과 개설이 미용 산업의 위상을 높이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미용학과가 개설되기 전부터 현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로인한 긍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미용전공자들은 취업에 의지가 없거나 취업 후에도 타 직종으로 전환하는 이직률이 높아 산업체의 인력난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용전공자들이 전공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낮은 지지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인식은 미용전공 학생들에게 위축감을 갖게 할 것이며, 특히 아직 진로에 대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미용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전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사료 되며, 이는 곧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 또는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행동 목표, 의도, 성과기대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행동적인 성과를 예측하고 학업성취, 운동영역수행, 건강관련행위, 일상적인 의사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수행과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김진숙, 2013, p.1348). 사회지지도나 인식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논문들은 분야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연구되어 발표되고 있다.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의 가장 첫 번째는 교육수요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 또한 교육과정에 임하는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미용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로 변수와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와 연구대상자들의 배경요인에 따른 변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미용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적인 자료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보는 바이다.

**【주요어】** 미용고등학교,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진로준비행동, 학업성취, 사회지지도, 의사결정.

# 목 차

|                                  |    |
|----------------------------------|----|
| I. 서 론 .....                     | 1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1  |
| 1.2 용어의 정의 .....                 | 4  |
| 1.2.1 헤어미용 .....                 | 4  |
| 1.2.2 피부미용 .....                 | 5  |
| 1.2.3 메이크업 .....                 | 6  |
| 1.2.4 네일아트 .....                 | 7  |
| II. 이론적 배경 .....                 | 9  |
| 2.1 미용고등학교 .....                 | 9  |
| 2.1.1 미용고등학교의 특성 .....           | 9  |
| 2.1.2 미용고등학교의 현황 .....           | 10 |
| 2.2 자기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 진로준비행동 ..... | 14 |
| 2.2.1 자기효능감 .....                | 14 |
| 2.2.1.1 자신감 .....                | 15 |
| 2.2.1.2 자기조절효능감 .....            | 15 |
| 2.2.1.3 과제난이도 .....              | 15 |
| 2.2.2 진로결정 .....                 | 16 |
| 2.2.2.1 목표선택 .....               | 16 |
| 2.2.2.2 직업정보수집 .....             | 17 |
| 2.2.2.3 문제해결 .....               | 17 |
| 2.2.2.4 미래계획수립 .....             | 17 |
| 2.2.3 진로준비행동 .....               | 18 |
| 2.2.3.1 정보수집 .....               | 18 |

|                                          |           |
|------------------------------------------|-----------|
| 2.2.3.2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행동 .....             | 18        |
| 2.2.3.3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 .....            | 18        |
| <b>III. 연구문제 및 가설 .....</b>              | <b>19</b> |
| 3.1 연구문제 .....                           | 19        |
| 3.2 연구의 가설 .....                         | 20        |
| <b>IV. 연구방법 .....</b>                    | <b>21</b> |
| 4.1 연구 대상 .....                          | 21        |
| 4.2 연구 도구 .....                          | 21        |
| 4.2.1 자기효능감 척도 .....                     | 21        |
| 4.2.2 진로결정 척도 .....                      | 22        |
| 4.2.3 진로준비행동 척도 .....                    | 22        |
| 4.2.4 배경변인 특성 .....                      | 22        |
| 4.3 자료 분석 .....                          | 22        |
| <b>V. 연구결과 .....</b>                     | <b>23</b> |
| 5.1 조사 대상자들의 배경변인 특성 .....               | 23        |
| 5.2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과 하위변인들의 기술통계 ... | 24        |
| 5.3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상관관계 .....             | 26        |
| 5.3.1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과 진로결정의 하위변인 간의 상관관계 ·  | 26        |
| 5.4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 .....            | 27        |
| 5.4.1 자기효능감 하위변인과 진로준비행동 하위변인 간의 상관관계 ·  | 27        |
| 5.5 배경변인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             | 29        |
| 5.5.1 성별의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             | 29        |
| 5.5.2 학년의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             | 32        |

|                               |        |
|-------------------------------|--------|
| 5.5.3 전공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  | 36     |
| 5.6 배경변인에 따른 진로결정의 차이 .....   | 38     |
| 5.6.1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의 차이 .....   | 38     |
| 5.6.2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의 차이 .....   | 42     |
| 5.6.3 전공에 따른 진로결정의 차이 .....   | 47     |
| 5.7 배경변인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 | 52     |
| 5.7.1 성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 | 53     |
| 5.7.2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 | 54     |
| 5.7.3 전공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 | 58     |
| <br>VI. 결론 및 제언 .....         | <br>60 |
| 6.1 결론 .....                  | 60     |
| 6.2 제언 .....                  | 64     |
| <br>참고문헌 .....                | <br>66 |
| 부 록 .....                     | 70     |

## 표 목 차

|                                          |    |
|------------------------------------------|----|
| <표 1> 미용관련 고등학교 개설 현황 .....              | 12 |
| <표 2> 배경변인의 특성 .....                     | 23 |
| <표 3> 하위변인의 기술통계 .....                   | 24 |
| <표 4> 자기효능감 하위변인과 진로결정 하위변인 사이의 상관관계 ... | 26 |
| <표 5> 자기효능감 하위변인과 진로준비행동 하위변인 사이의 상관관계   | 28 |
| <표 6> 성별에 따른 자신감의 차이 .....               | 29 |
| <표 7> 성별에 따른 자기조절효능감의 차이 .....           | 29 |
| <표 8> 성별의 따른 과제난이도의 차이 .....             | 30 |
| <표 9> 성별의 따른 자기효능감 전체의 차이 .....          | 31 |
| <표 10> 학년에 따른 자신감의 차이 .....              | 32 |
| <표 11> 학년의 따른 자기조절효능감의 차이 .....          | 33 |
| <표 12> 학년의 따른 과제난이도의 차이 .....            | 33 |
| <표 13>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 전체의 차이 .....         | 34 |
| <표 14> 전공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차이 .....            | 36 |
| <표 15> 성별에 따른 목표선택의 차이 .....             | 37 |
| <표 16> 성별의 따른 직업정보수집의 차이 .....           | 38 |
| <표 17> 성별의 따른 문제해결의 차이 .....             | 39 |
| <표 18> 성별의 따른 미래계획수립의 차이 .....           | 39 |
| <표 19> 성별의 따른 진로결정 전체의 차이 .....          | 40 |
| <표 20> 학년의 따른 목표선택의 차이 .....             | 41 |
| <표 21> 학년의 따른 직업정보수집의 차이 .....           | 42 |
| <표 22> 학년의 따른 문제해결의 차이 .....             | 43 |
| <표 23> 학년의 따른 미래계획수립의 차이 .....           | 44 |
| <표 24> 학년의 따른 진로결정 전체의 차이 .....          | 45 |
| <표 25> 전공에 따른 목표선택의 차이 .....             | 46 |
| <표 26> 전공에 따른 직업정보수집의 차이 .....           | 47 |
| <표 27> 전공에 따른 문제해결의 차이 .....             | 48 |

|                                          |    |
|------------------------------------------|----|
| <표 28> 전공에 따른 미래계획수립의 차이 .....           | 49 |
| <표 29> 전공에 따른 진로결정 전체의 차이 .....          | 50 |
| <표 30> 성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           | 51 |
| <표 31> 학년에 따른 정보수집의 차이 .....             | 52 |
| <표 32> 학년에 따른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행동의 차이 .....   | 53 |
| <표 33> 학년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차이 ..... | 54 |
| <표 34>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전체의 차이 .....        | 55 |
| <표 35> 전공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           | 56 |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미용교육은 1948년 1차 미용사자격증시험을 기점으로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1953년 정화고등기술학교가 설립되고 1961년 12월 5일에 법률 제798호로 이용사 및 미용사법이 입법화 되면서 미용사면허제도가 도입 되었다. 이후 폐지와 제정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현재는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제정되어 운영되어지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여러 실업고등학교가 미용고등학교로 개명하고, 미용이라는 특성화 교육을 통해 세계적, 미래적으로 유능한 미용인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1991년도를 기점으로 2년제 전문대학에 미용관련 학과들이 개설되었고, 1999년 광주여자대학교에 4년제 미용학부가 개설되었다.

1997년 4년제 대학교의 미용관련 학부가 운영되기 전부터 한성대학교 특수대학원에서는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미용인들의 사회적 위상을 고취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었다. 이러한 미용교육 환경을 선두로 2003년 고등학교 학력인정기관인 부산미용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 46개 실업계고교 및 인문계 고교 직업계열에서도 미용관련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용고등학교를 졸업 한 후 2년제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하여 세분화되어 있는 미용관련 전공과목을 접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구축되어 있다. 또한 일부 비사범계 대학의 학생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직이수과목이 일부 4년제 미용학과에서 운영되고 있어, 소정의 학점을 이수 한 학생에게는 정교사 2급의 교원자격증과 함께 국·공립 중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치러야하는 임용고시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중등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부여 받을 수 가 있다. 또한 그 시대에 트렌드 변화의 선두에 위치한 미용관련 산업들은 미용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주며, 질적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가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현재의 미용교육은 실용학문의 대표 분야로서 미용교육대학원과 나아가 미용관련 박사학위를 취득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교육과 연구의 장이 마련되어져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미용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초과정이라 할 수 있는 미용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에 따른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미용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각하는 전공에 대한 실용학문으로서의 가치의식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미용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전문대학이나 4년제 정규대학교, 대학원과 박사과정의 초석이 되는 인재양성의 모태가 되는 교육기관임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미용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는 향후 미용교육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데 있어 그의 따른 방향과 흐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지은(2013)은 교육은 새로운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소극적인 과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 지식을 획득하는 적극적인 과정을 의미한다고 했으며, 김순옥(2007)은 미용교육은 예술과 철학, 과학으로 구성된 실용학문 분야로 이론적 지식축적 및 기능습득 면에서 광범위한 숙련기간을 통해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예술 작품인 동시에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실질적인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노영희, 한미자(2009)는 미용교육 중 일반교육과 다르게 중요시 되어야 할 점은 학생들이 뚜렷한 교육 목적의식 하에 과학적, 예술적, 사회적, 기초의학적, 보건학적 측면등과 관련된 이론과 기술을 익혀 그들이 전문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하도록 해야 하는 점이라고 밝혔다. Bandura A(1986)는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의도한 수행을 성취하는데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들을 조직하고 실행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이경화, 고진영, 최병연, 정미경, 박숙희, 2009, p.308)라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행동적 변화를 중재하는 공통적 인지기제이며,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을 어느 정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판단을 의미 한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개인마다 다르듯이 예기치 않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게 되는 방식이나 태도 또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 상황에 대처할 있는 능력이 없다고 여길 때는 그 상황을 회피하나 자신이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길 때는 자신을 갖고 대처 행동을 한다(이동영, 1997, pp.18-19).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상황에서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Schwarzer & Jerusalem, 1995)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이나 진로결정 등의 심리적 기제가 교육수요자의 교육에 대한 수행능력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느 분야에서나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자의 미용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는 미용고등학교 외에도 미용관련교육기관 등에서 학생들의 효과적인 교육과정 수행능력을 위한 심리적 기제인 것을 자각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사료 하는 바이다.

노영희, 한미자(2009)는 미용교육도 양적증가만이 아닌 질적으로도 함께 성숙되어야하는 전환기를 맞이하였다고 했으며, 이런 전환기에 발전적이고 차별화 된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미용교육기관의 수치화 된 현황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정보연, 김은화(2010)는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과 문화 수준의 향상으로 미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우리나라의 미용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직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오경현(2007)은 미용 산업은 외국시장 개방과 거대 프랜차이즈의 탄생 등으로 점점 커다란 시장을 형성해가며 냉정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자들의 미용 산업에 대한 발전과 발전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본 연구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미용 산업의 긍정적인 비전을 보고 고등학교에서부터 전공으로 공부하며,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는 미용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와 지지도는 미용 산업의 발전과 비전에 비해 현저히 낮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자가 느끼는 미용교육에 대한 현실이다.

본 연구자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선행 연구 자료로 이미정(2007)은 우리나라의 교육체계 속에서 실업교육이나 기술교육이 교육의 한 분야로 당당하게 인

정받는다라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히며, 미용교육의 대한 사회인식에 문제를 제기 하였다. 또한 1970년대 산업사회구조 속에 단순 노동 자영업의 한 분야였던 미용이란 기술이 1997년 교육부 7차 교육과정에서 가사 실업 관련 교과에 실업고등학교의 미용과가 고등학교 교육의 한분야로 신설되었으나 교육현장은 교과목 담당 교사, 교과서, 교육내용, 교육실습비 등 현실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하였다. 최영진(2010)은 미용학과 개설의 현저한 증가로 인해 미용의 위상은 높아지고 미용 면허소지자의 수가 증가하였으나 많은 미용전공자들이 취업에 의지가 없거나 취업 후에도 타 직종으로 전환하는 이직률이 높아 산업체의 인력난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행 연구 자료들은 미용전공자들이 전공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낮은 지지도와 인식을 차지하고 있다는 연구자의 생각을 뒷받침 해준다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동기와 행동에서 예감이나 예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인지이론의 중심 개념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일련의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와 인지적 자원 및 행동 절차를 잘 발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 또는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A, 1977). 또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행동 목표, 의도, 성과기대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행동적인 성과를 예측하고 학업 성취, 운동 영역 수행, 건강 관련 행위, 일상적인 의사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수행과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진숙, 2013, p.1348).

이에 본 연구는 미용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서 그들의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그리고 진로준비행동 사이에 상관관계와 미용고등학교 학생들의 배경변인이 되는 성별, 학년 전공에 따른 진로결정 그리고 진로준비행동 사이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검정을 해 보고자 한다.

미용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앞으로의 미용 산업은 물론 미용교육 분야의 인

재양성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의 미용분야의 주역이 되는 미용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의 배경변인 성별, 학년, 전공에 따라 조사,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 1.2 용어의 정의

### 1.2.1 헤어미용

미용이란 용모를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로 복식을 제외한 여러 가지 물리적 · 화학적 기교와 방법들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1월 피부미용사의 자격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헤어미용이나 피부미용이라는 용어는 제도 안에서 무의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헤어미용이란 용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행위 가운데 헤어를 소재로 하는 행위만을 구분하여 전문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명칭이라 할 수 있겠다.

80년대 후반까지 헤어에 관한 전문성은 오로지 디자인만으로 인정받던 시대였음을 그 시대를 지내온 사람이라면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열 조절이 수동식이었던 아이론과 헤어드라이기의 잘못된 사용방법 등으로 매일 집에서 머리손질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머리카락의 끝이 결절되어 있었으며, 바람머리가 유행하던 시절이었으므로 손상된 부분을 커트하여 짧은 스타일을 고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실정이 이러 했으니 두피나 머리카락에 관한 클리닉이나 케어 등의 세분화되는 명칭자체가 필요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 된다. 그러나 라이프스타일이 에코로지를 추구하면서 미의 기준 또한 네추럴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90년대 후반부터의 헤어스타일은 디자인에 있어서는 오히려 난해한 기교를 요구 하게 되었으며, 소재에 대해서는 윤기와 탄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소재의 타고난 건강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와 디자인에 차별을 두어 아

름다움과 개성을 표현하고자하는 고객의 심리는 헤어디자이너들에게 모발과 학이나 미술의 조형원리에 대해 보다 깊은 지식을 갖추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헤어미용이란 제한된 소재에 과학적 지식과 예술의 감성을 조화롭게 표현하는 살아있는 조형예술이라 할 수 있다고 사료하는 바이다.

### 1.2.2 피부미용

피부미용이란 전신의 피부를 대상으로 기능의 정상적인 유지와 보다 젊고 아름다운 상태로 가꾸어 주는 미용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피부의 기능으로는 보호적 기능과 장식적 기능, 심리적 기능, 의학적 기능 등이 있으며 모든 기능의 질병이나 질환에 대한 예방차원에서의 관리를 피부미용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피부미용은 피부관리, 에스테틱, 코스메틱, 스킨케어 등으로 불리고 있다. 2007년 7월 국가기술 자격법의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미용사(피부)라는 국가고시 자격시험이 신설 되면서 피부미용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 지식은 물론 과학적이고 정확한 실무능력을 요구하게 되었다.

피부미용분야는 이해정도에 따라 의료분야와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의 대해서는 업계의 여러 크고 작은 사고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피부미용에는 단연 으뜸이라 할 수 있는 마사지 기법이 있으며, 피부미용에 쓰이는 어떠한 기기도 손으로 하는 마사지 기법의 효과를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한다.

마사지 기법은 피부미용 분야의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발전에 따라 매뉴얼 테크닉이라는 구체적인 용어로 뜻을 같이하여 불리고 있다. 매뉴얼 테크닉의 여러 장점과 기능으로는 피부의 탄력성과 흡수성을 증가 시키며,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의 촉진, 신진대사의 촉진 및 신체기능 회복, 노화각질 및 조직의 노폐물 제거, 조직의 경직성 이완 및 완화, 피부의 모세혈관 강화, 내분비기능의 조절, 신체의 면역력 증가, 마사지 후 영양물질의 흡수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효과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평소 생각하는 매뉴얼 테크닉의 가장 큰 매력은 관리자가 고객에게 제공 할 수 있는 서비스들 가운데 기능의 과학적인 효과와 함께 고객감동에 가장 예민하게 작용 한다는 부분이다.

피부와 피부의 접촉으로 이뤄지는 관리인만큼 테크닉의 노련함이나 미숙함은 고객의 심리상태에 크게 작용되어 관리를 통해 얻어지는 과학적인 효과와는 별개로 관리전반의 만족과 불만족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매뉴얼 테크닉의 기능으로 고객과 관리자 사이에 감성교류 기능을 더한다 해도 무리가 없을 듯 하며 기기관리나 의료행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자는 피부미용이란 심리적 안정감과 피부의 안정,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한 행위로 의료기기 및 의료적 행위 등을 제외한 피부관리를 목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본연구자는 사료하는 바이다.

### 1.2.3 메이크업

메이크업(Make-Up)이란 화장과 분장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페인팅(Painting), 토일렛(Toilet), 드레싱(Dressing), 프랑스어로는 마꾸아즈(Marquillage)로 표현되고 있으며 분장을 뜻하는 연극 용어이었다. 토일렛(Toilet)은 프랑스의 뜨왈렛뜨(Toilette)가 1540년 영국에 전해지면서 화장을 포함한 몸치장 전반을 가르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메이크업이라는 용어는 17세기 초 영국의 한 시인이 여성의 매력을 높여주는 화장을 뜻으로 처음 사용되었으며 현재 보통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화장의 명칭은 미국의 할리우드 전성기 때로부터 기인한다(사사키 치카, 송유정, 오선숙, 이상은, 이영미, 이철영, 정연자, 2007). 미국의 메이크업 헤어 연출가 집안인 웨스트 모어가(家)에서 집필한 ‘더 뷰티 북’에 의하면 미는 우연히 생성될 수 없고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며, 메이크업은 자기 자신의 심리학이라고 했으며, 슈에무라는 메이크업은 소비적인 것이 아니라 밝고 생산적인

것이라고 했다(강명주, 노선옥, 김은주, 김정희, 정철순, 천지연외 2009).

미의 기준과 트렌드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면서 미를 다루는 여러 분야에서는 분야별 특징과 개성에 조화를 이루며 변화를 추구해왔다. 특히 메이크업은 인간의 피부색과 이목구비를 아름답게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컬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상위를 차지하는 심미적 욕구가 있다. 본 연구자는 메이크업을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관점에서 정의 해보고자 한다.

이에 메이크업은 자아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며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심리를 색채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1.2.4 네일아트

손이라는 뜻의 라틴어 ‘마누스’와 관리라는 뜻의 ‘큐라’에서 메니큐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네일의 모양 정리, 큐티클 정리, 손 마사지, 컬러링 등을 포함한 총괄적인 손의 관리를 뜻하며 BC3000년경부터 이집트와 중국의 상류층에서 네일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문헌의 기록으로 보아 네일 관리는 5000년의 걸친 역사가 있음을 말해준다.

기원전 고대 이집트에서는 네일 색상의 짙고 열음으로 신분을 구분하였고 미이라의 네일에도 색상을 입혔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입술연지를 만드는 홍화를 네일에 발라 ‘조홍’이라 하였다. 중세시대에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이 입술과 네일에 같은 색상의 염료를 사용하여 칠하기도 하였다(이영순, 한영숙, 전미향, 조미자, 2005).

네일 아트는 네일 관리의 발전이 오늘날에 이어 색채 예술에 한 부분이 되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사용되는 색상에 제한이 없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큐빅, 아크릴, 페브릭 등의 장식으로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인간이 신체 가운데 손은 신체의 모든 부분을 접촉하여 살필 수 있으며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자기 자신의 신체 가운데 안면과 함께 항상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타인의 시선은 물론 자신의 시선으로 유일하게 항상 관찰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자신의 기분이나 상태에 따라 네일 아트를 표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성을 네일 아트를 통해 멋지고 아름답게 꾸며 자신감을 높일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네일 아트란 신체의 일부에 행하는 색채 예술이며, 나아가 조형 예술의 또 다른 표현 가운데 하나라고 말해 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2.1 미용고등학교

#### 2.1.1 미용고등학교의 특성

미용고등학교의 미용교과목은 교육과정에서 가사실업계열 전문 교과목에 속하며 미용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업 기초 지식과 실무 능력을 길러 취업 하거나 진학하여 계속적으로 전문 교육을 받아 자아를 실현하고, 뷰티분야의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분야별 전문 교과목의 구성에서 자격과의 연계를 강화 하였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보장할 수 있고 기초 교육과 현장성이 조화를 이룬 전문 교육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가사·실업 계열에서는 ‘인간발달’, ‘컴퓨터일반’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고 ‘식품과 영양’, ‘공중 보건’ 과목은 관련 학과에서 공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편제되었다. 이 중 미용관련 교과목으로는 ‘공중보건’ 한과목이며 미용교과목의 선택과목으로는 ‘헤어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공중보건’등이 있다. 전문 과목 교과내용은 교육개혁의 정신, 제7차 교육 과정의 기본방향과 목표, 미용계 고등학교의 교육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직접적인 매개가 되도록 한다. 해당 전문 과목 구성에서 자격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졸업 후 관련 분야로의 취업, 진학, 취업 후 계속 교육 등의 다양한 진로 보장이 가능하도록 분야별 현장성에 기초한 전문 교육 내용으로 구성한다. (교육과학기술부, 2009)

### 2.1.2 미용고등학교의 현황

2000년 3월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인 부산미용고등학교를 선두로 현재는 전국 46개의 실업계 고교 및 인문계 고교 직업 계열에서도 미용관련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노영희, 한미자, 2009; 이미정, 2007).

고등학교 형태에 따른 미용고등학교는 전문계 고등학교, 통합형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산업학교, 고등학교 학력인정학교, 미용관련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구분되어 존재한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개설된 미용관련 학과 명칭은 ‘미용과’라는 명칭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 피부미용과, 토탈미용과, 헤어미용과, 미용학과, 이·미용과 등 전문대학에 개설된 미용관련과에 명칭과 유사하며 일부학교에서는 학교 특성에 맞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명순, 서윤경, 2009; 황윤정, 2012).

미용교육과정은 미용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여 변화하는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미용분야의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 위함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미용인으로 갖추어야 하는 미용에 대한 역사와 미용분야의 대한 이해 및 미용분야의 직업인으로 교육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2).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향유하려는 인간의 소망과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의 질적 변화는 인체에 있어서 헤어 디자인 부분과 피부미용 관리에 대한 인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미용고등학교의 교육목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전문적 미용기술과 피부관리 기술을 습득시켜 미적능력을 갖춘 미용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미용교육의 체계적인 학습과 실기능력을 미적, 과학적으로 연마함으로서 유능한 전문 미용직업인을 양성하는데 있다(이희선, 2011, p.16).

미용관련 고등학교의 개설 현황을 2013년 6월을 기준으로 <표 1>과 같이 정리 하였다.

<표 1> 미용관련 고등학교 개설 현황

| No | 지역 | 학교명        | 학과명     | 학년제 |
|----|----|------------|---------|-----|
| 1  | 서울 | 서서울생활과학고   | 이미용과    | 3   |
| 2  |    | 위례정보산업고    | 피부미용과   | 3   |
| 3  |    | 연희미용고      | 미용과     | 2   |
| 4  |    | 정화미용고등학교   | 미용과     | 2   |
| 5  |    | 정암미용고등학교   | 미용과     | 2   |
| 6  |    | 아현산업정보학교   | 미용예술과   | 3   |
| 7  |    | 서울산업정보학교   | 미용예술과   | 1   |
| 8  |    | 종로산업정보학교   | 미용예술과   | 1   |
| 9  | 광주 | 동일전자정보고    | 피부미용과   | 1   |
| 10 | 대구 | 한남미용정보고    | 미용과     | 2   |
| 11 |    | 대구산업학교     | 미용피부과   | 1   |
| 12 |    | 경신정보과학고    | 미용과     | 3   |
| 13 |    | 경북여자정보고    | 미용과     | 1   |
| 14 |    | 정신정보과학고등학교 | 미용과     | 3   |
| 15 | 대전 | 유성생명과학고    | 토탈뷰티과   | 3   |
| 16 | 인천 | 인천생활과학고    | 토탈미용과   | 3   |
| 17 |    | 북인천정보산업고   | 미용예술과   | 3   |
| 18 |    | 남인천고등학교    | 미용과     | 3   |
| 19 |    | 인천산업정보학교   | 뷰티미용과   | 1   |
| 20 | 부산 | 부산미용고      | 미용과     | 3   |
| 21 |    | 영화고        | 영상헤어디자인 | 3   |
| 22 |    | 예원정보고      | 미용과     | 3   |
| 23 |    | 부경정보고      | 미용과     | 3   |
| 24 |    | 부산산업학교     | 미용과학과   | 3   |

|    |    |            |        |   |
|----|----|------------|--------|---|
| 25 | 강원 | 홍천정보과학고    | 미용과    | 1 |
| 26 | 경기 | 경기미용고      | 미용과    | 3 |
| 27 |    | 일산고등학교     | 미용과학과  | 3 |
| 28 |    | 진영정보고등학교   | 미용예술과  | 3 |
| 29 | 경남 | 경남미용고등학교   | 미용과    | 3 |
| 30 | 경북 | 포항정보고      | 미용정보과  | 3 |
| 31 |    | 경주삼성고      | 미용과    | 3 |
| 32 |    | 경북생활과학고    | 미용과    | 3 |
| 33 |    | 동산여자전산고    | 피부미용과  | 3 |
| 34 |    |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 | 미용예술과  | 3 |
| 35 |    |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 | 미용과    | 3 |
| 36 |    | 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 | 뷰티디자인과 | 3 |
| 37 | 전남 | 전남미용고      | 피부미용과  | 3 |
| 38 | 전북 | 남원여자정보고    | 미용과    | 3 |
| 39 |    | 남원제일고      | 미용과    | 3 |
| 40 |    | 덕암정보고      | 헤어디자인과 | 3 |
| 41 |    | 학산정보고      | 헤어미용과  | 3 |
| 42 | 충남 | 병천고        | 미용과    | 3 |
| 43 |    | 증평정보고      | 뷰티미용과  | 3 |
| 44 | 충북 | 예일미용고등학교   | 미용과    | 2 |
| 45 | 제주 | 제주고산관광정보고  | 미용과    | 3 |
| 46 |    | 한국뷰티고등학교   | 토탈뷰티과  | 3 |

<표 1>의 미용관련 고등학교 개설 현황은 2013년 6월을 기준으로 본 연구자가 조사 하여 작성한 것으로 일부 지역의 인문계열 고등학교에 개설되어있는 실기위주의 방과 후 학습형태의 미용수업은 제외하였다.

## 2.2 자기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 진로준비행동

### 2.2.1 자기효능감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주로 영역 특수적인 구조라고 제안된다. 자기효능감은 학생의 역량에 부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은 낮은 역량의 학생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학습에 대해서 더욱 높은 효능감을 느낀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은 역량과는 다르게 접근되어지며 인지되고 있다.

반두라(Bandura, 1977)는 자기효능감을 영역이나 과제 특수적인 개념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정한 상황에 대한 숙달을 증진하는 치료적 개입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반응과 성과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하고자하는 어떤 일이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자기 자신에게 느끼는 신념으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발달하는 인지 기능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으로는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를 들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하위 변인은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

#### 2.2.1.1 자신감

자신감이란 자기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관하여 목표에 대한 계획과 실천을 하는데 있어서의 긍정적인 심리지제로 작용하게 하는 자기에 대한 믿음이다. 자신감은 어떤 일에 대한 성공적인 달성이나 깨우침에서 자각되는 심리로서 타인의 의존하여 발생하는 자신감은 의구심을 일으키기 쉬우며, 진정한 자신감이라 할 수 없다. 내가 나를 믿는 것은 오로지 내가 만든 잣대로 나를 둘러 인정하는 것으로 지극히 주관적이며 개인의 따라 나타나는 행동기제 또한 그 형태에 차이가 있다고 사료 되는 바이다.

#### 2.2.1.2 자기조절효능감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대처하고자 하는 행동이나 사고에 대한 심리형태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필요한 자기조절 전략이나 기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입시키는가에 대한 행동기제이며, 그 행동에 대한 확신으로 걸림돌이나 장애에 부딪히게 될 때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2.2.1.3 과제난이도

제시된 목표나 과제에 대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여부에 따라 역량의 향상 또는 부진함은 지속된다.

과제 난이도는 주어진 과제에 대한 정복하고자하는 의지기제이며, 과제난이도에 대한 도전적인 의식은 하고자 하는 일이나 일어나는 상황들을 고차원적으로 발전시키거나 향상되게 하는 변화를 가져온다. 즉 과제난이도는 과제나 목표에 대한 도전적이며 몰입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로서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꼭 필요한 행동기제라고 할 수 있다.

### 2.2.2 진로결정

진로결정은 개인이 그들의 생애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선택시점에서 결정하게 되는 결정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서, 개인이 특별한 직업에 입문하기 위한 의도의 표현이다(Crites, 1961). 그러므로 진로를 결정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재 상태 이후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음을 의미하며, 예를 든다면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 혹은 졸업 후의 구체적인 직업분야에 대한 선택 등을 뜻한다(김봉환, 1997).

진로결정이란 바람직한 진로교육을 통해 진로설계와 계획이 장시간에 걸쳐 진로발달로 이루어진 결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결정적 시기’에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상태를 말한다(주효정, 2012. p.20).

#### 2.2.2.1 목표선택

관심 있는 분야나 직업 등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는 것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게 되는 노력의 자세이다. 달리 말하자면 목표가 없는 사람에게서 관심을 갖는 분야나 직업에 대한 생각, 정보 등을 탐색하는 행동은 용이하지 않은 일일 것이라고 본다.

목표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삶에 목표를 가지는 일은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행동이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은 오늘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게 해준다.

즉 목표선택은 스스로 살아가는 이유를 만들어 내는 것 이라고 본 연구자는 생각하는 바이다.

#### 2.2.2.2 직업정보수집

직업정보수집이란 전공에 대한 교육과정을 인지하고 취업에 필요한 일련에 절차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전공 분야의 최근 동향이나 고용정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하는 자세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함과 동시에 분발시키는 전략적인 능력이라 말할 수 있다.

#### 2.2.2.3 문제해결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감당하거나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이 어떤 희생은 감수할 수 있고, 또 어떤 희생은 감수하기 어려운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며,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생활방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직업선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알 수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2.2.2.4 미래계획수립

미래계획수립은 처음 선택한 진로나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전공이나 대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자신이 선택한 진로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과감하게 변경 할 수 있는 결정능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 2.2.3 진로준비행동

개인이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행동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김봉환, 1977). 진로준비행동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김봉환(1977)에 의해서 진로분야의 필수적인 연구영역으로 개념화가 시도되었다.

### 2.2.3.1 정보수집

자신의 적성, 흥미, 성격 등과 같은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 등 현재 진로분야의 직업현황이나 전망, 취업방법에 관한 요건이나 경로 등 작업환경과 같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집하는 기능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 2.2.3.2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행동

자기가 목표한 직업에 성공적인 취업을 위하여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 혹은 교재 등을 구입하는 실질적인 노력이다.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혹은 면허증 등을 획득하여 사전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비하는 일도 포함된다.

### 2.2.3.3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

목표달성에 필요한 교육기관이나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한 행동이며, 진로와 관련하여 해당기관 등을 방문하는 실천적 노력을 하는 실제 활동을 말한다.

### III. 연구의 문제 및 가설

#### 3.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자기효능감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①자신감 ②자기조절 효능감 ③ 과제 난이도)과 진로결정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①목표선택 ②직업 정보수집 ③문제해결 ④ 미래계획수립)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2. 자기효능감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①자신감 ②자기조절 효능감 ③ 과제 난이도)과 진로준비행동이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①정보수집, ②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행동, ③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3. 학생들이 지각한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목표선택 ㉡직업정보수집 ㉢문제해결 ㉣미래계획수립)은 그들의 배경변인(①성별 ②학년 ③전공)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학생들이 지각한 진로결정의 하위변인(㉠목표선택 ㉡직업정보수집 ㉢문제해결 ㉣미래계획수립)은 그들의 배경변인(①성별 ②학년 ③전공)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5. 학생들이 지각한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정보수집,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행동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은 그들의 배경변인(①성별 ②학년 ③전공)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3.2 연구의 가설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 학생들이 지각한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하위변인(㉠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과 그들의 진로결정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①목표선택 ②직업정보수집 ③문제해결 ④ 미래계획수립)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 자기효능감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과 진로준비행동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정보수집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행동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I> 학생들이 지각한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하위변인(㉠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은 그들의 배경변인 특성(①성별 ②학년 ③전공)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V> 학생들이 지각한 진로결정의 하위변인(㉠목표선택 ㉡직업정보수집 ㉢문제해결 ㉣미래계획수립)은 그들의 배경변인 특성 (①성별 ②학년 ③전공)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V> 학생들이 지각한 진로준비행동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 정보수집,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행동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은 그들의 배경변인 특성(①성별 ②학년 ③전공)에 대해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V연구방법

### 4.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3년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15일의 조사기간이 있었으며, 연구 대상자들의 표집을 위하여 미용과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가운데 경기도에 소재한 2곳의 미용전공생과 충청도에 소재한 2곳의 미용전공생 1학년, 2학년, 3학년 38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 방법은 판단표집 (judgement sampling)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성실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부수 380부 중 설문의 대한 답변 일부가 누락된 설문지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25부를 제외하고 총 355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 4.2 연구 도구

#### 4.2.1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는 주효정(2012)이 사용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성요인은 자신감 7문항, 자기조절효능감 11문항, 과제 난이도 6문항으로 리커트 척도(Lickertis scale)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그렇다”의 5점에 서 “매우 그렇지 않다”의 일점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 4.2.2 진로결정 척도

종속변인인 진로결정에 대한 설문지로는 진로결정척도 Betz, Klein, Taylor(1996)의 CDMESE-S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를 이은경 (2001)이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타당화 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 4.2.3 진로준비행동 척도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의 척도로서 김봉환(1997)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검사도구(16문항)를 이명숙(2003)이 수정 보완 (18문항)한 것을 사용하였다.

#### 4.2.4 배경변인 특성

미용전공생들의 배경변인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별, 학년, 전공의 3문항을 명목척도로 구성하였다.

### 4.3 자료 분석

조사 대상자들의 배경 변인이 되는 배경변인 특성의 하위변인인 성별, 학년, 전공 3문항에 대한 빈도분석을 하였다. 배경변인 속성과 개별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각 변인들과 배경변인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차이검증인 t-test(paired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인 ANOVA(analysis of variance)검사를 실시하였다. 독립 변인과 종속변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분석(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V. 연구결과

### 5.1 조사 대상자들의 배경변인 특성

<표 2>는 본 연구를 위해 설문에 참여한 미용고등학교 학생들의 배경변인의 특성에 대한 빈도 결과이다. 성별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여학생이 300명으로 84.5%가 나타났고, 남학생은 54명으로 15.5%가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69%로 많은 인원으로 직업의 특성에 대한 성별의 고정관념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학년에 대한 비교 분석으로는 1학년이 105명으로 29.5%, 2학년은 128명으로 36.1%, 3학년은 122명으로 34.1%를 나타냈다.

전공의 비교분석결과 헤어 전공자는 148명으로 41.7%가 나타나 네 개의 전공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였으며, 피부 전공자는 64명으로 18%가 나타났고, 네일 전공자는 45명으로 12.7%를 나타내어 네 개의 전공 가운데 가장 적은 인원을 차지하였다. 메이크업 전공자는 98명으로 27.6%가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을 차지 하였다.

<표 2> 배경변인의 특성

| 구분 |     | 빈도(N) | 백분율(%) |
|----|-----|-------|--------|
| 성별 | 남   | 55    | 15.5   |
|    | 여   | 300   | 84.5   |
|    | 합계  | 355   | 100.0  |
| 학년 | 1학년 | 105   | 29.6   |
|    | 2학년 | 128   | 36.1   |
|    | 3학년 | 122   | 34.1   |

|    |      |     |       |
|----|------|-----|-------|
|    | 합계   | 355 | 100.0 |
| 전공 | 헤어   | 148 | 41.7  |
|    | 메이크업 | 64  | 18.0  |
|    | 네일   | 45  | 12.7  |
|    | 피부   | 98  | 27.6  |
|    | 합계   | 355 | 100.0 |

## 5.2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 기술통계

<표 3>은 각 변인에 대한 특정 표본 전체의 전반적인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데이터의 합리적인 요약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기술통계 분석결과이다.

<표 3> 하위변인의 기술통계

| 구분       | N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
| 자신감      | 355 | 1.86 | 4.57  | 3.33 | .42  |
| 자기조절효능감  | 355 | 2.00 | 4.27  | 3.08 | .36  |
| 과제난이도    | 355 | 2.00 | 4.17  | 3.10 | .35  |
| 자기효능감 전체 | 355 | 2.22 | 4.17  | 3.17 | .30  |
| 목표선택     | 355 | 1.73 | 5.00  | 3.48 | .50  |
| 직업정보수집   | 355 | 1.67 | 10.00 | 3.32 | .69  |
| 문제해결     | 355 | 1.00 | 4.67  | 3.16 | .63  |

|              |     |      |      |      |     |
|--------------|-----|------|------|------|-----|
| 미래계획수립       | 355 | 1.17 | 4.83 | 3.23 | .51 |
| 진로결정전체       | 355 | 1.72 | 5.00 | 3.28 | .43 |
| 정보수집         | 355 | 1.00 | 5.00 | 3.43 | .70 |
| 필요한도구를갖추는행동  | 355 | 1.00 | 5.00 | 3.14 | .60 |
| 목표달성을위한실천적노력 | 355 | 1.00 | 5.00 | 2.94 | .67 |
| 진로준비행동전체     | 355 | 1.08 | 4.71 | 3.17 | .56 |

### 5.3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상관관계

#### 5.3.1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과 진로결정의 하위변인 사이의 상관관계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와 진로결정의 하위변인인 목표선택, 직업정보수집, 문제해결, 미래계획수립은 모든 하위변인 사이에 정(+)적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신감과 목표선택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의확률이 .417인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감과 직업정보수집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의확률은 .26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감과 문제해결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의확률은 .1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과 미래계획수립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의확률은 .3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신감과 진로결정의 모든 하위변인 사이의 상관관계는  $p < 0.05$  수준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자기조절효능감과 목표선택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의확률은 .389인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조절효능감과 직업정보수집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의확률은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효능감과 문제해결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의확률은 .13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조절효능감과 미래계획수립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의확률은 .298을 나타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기조절효능감과 진로결정의 모든 하위변인 사이의 상관관계는  $p < 0.05$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과제난이도와 목표선택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의확률은 .242인 것으로 나타났고, 과제난이도와 직업정보수집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의확률은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난이도와 문제해결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의확률은 .14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제난이도와 미래계획수립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의확률은 .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과제난이도와 진로결정의 모든 하위변인의 상관관계는  $p < 0.05$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표 4> 자기효능감 하위변인과 진로결정 하위변인 사이의 상관관계

| 구분      | 자신감    | 자기조절효능감 | 과제난이도  | 목표선택   | 직업정보수집 | 문제해결   | 미래계획수립 |
|---------|--------|---------|--------|--------|--------|--------|--------|
| 자신감     | 1      |         |        |        |        |        |        |
| 자기조절효능감 | .490** | 1       |        |        |        |        |        |
| 과제난이도   | .424** | .537**  | 1      |        |        |        |        |
| 목표선택    | .417** | .389**  | .242** | 1      |        |        |        |
| 직업정보수집  | .269** | .268**  | .185** | .584** | 1      |        |        |
| 문제해결    | .123*  | .136*   | .142** | .189** | .142** | 1      |        |
| 미래계획수립  | .338** | .298**  | .145** | .825** | .557** | .166** | 1      |

\*  $p < 0.05$     \*\*  $p < 0.01$

## 5.4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

### 5.4.1 자기효능감 하위변인과 진로준비행동 하위변인 사이의 상관관계

자기효능감 하위변인과 진로준비행동 하위변인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자신감과 정보수집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의확률은 .346이 나타났고, 자신감과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행동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의확률은 .321이 나타났다,

자신감과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의확률은 .244가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가운데 자신감과 진로준비행동의 모든 하위변인과의 상관관계는  $P < 0.01$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기조절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하위변인인 정보수집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의확률은 .308가 나타났고 자기조절효능감과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행동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의확률은 .439가 나타났으며, 자기조절효능감과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의확률은 .38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기조절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모든 하위변인과의 상관관계는  $P < 0.01$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과제난이도와 진로준비행동 하위변인인 정보수집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의확률은 .231이 나타났고, 과제난이도와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행동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의확률은 .233이 나타났다. 과제난이도와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의확률은 .2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과제난이도와 진로준비행동 하위변인인 정보수집의 상관관계는  $P < 0.01$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변인들과 진로준비행동의 모든 하위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p < 0.01$  수준의 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자기효능감 하위변인과 진로준비행동 하위변인 사이의 상관관계

| 구분               | 자신감    | 자기조절<br>효능감 | 과제<br>난이도 | 정보수집   | 필요한도<br>구를갖추<br>는행동 | 목표달성<br>을위한실<br>천적노력 |
|------------------|--------|-------------|-----------|--------|---------------------|----------------------|
| 자신감              | 1      |             |           |        |                     |                      |
| 자기조절효능<br>감      | .490** | 1           |           |        |                     |                      |
| 과제난이도            | .424** | .537**      | 1         |        |                     |                      |
| 정보수집             | .346** | .308**      | .231**    | 1      |                     |                      |
| 필요한도구를<br>갖추는행동  | .321** | .439**      | .233**    | .624** | 1                   |                      |
| 목표달성을위<br>한실천적노력 | .244** | .380**      | .206**    | .425** | .748**              | 1                    |

\*\* p < 0.01

## 5.5 배경변인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 5.5.1 성별의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 5.5.1.1 성별의 따른 자신감의 차이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가운데 자신감에 관한 성별의 차이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남학생이 3.50이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3.30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의확률 .001의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의 따른 자신감의 차이는  $P < 0.05$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자기효

능감에서의 자신감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에 따른 특징적 차이가 자신감과 무관하지 않음을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표 6> 성별의 따른 자신감의 차이

| 구분  | 성별 | N   | 평균   | 표준편차 | t     | P(양쪽) |
|-----|----|-----|------|------|-------|-------|
| 자신감 | 남자 | 55  | 3.51 | .45  | 3.341 | .001  |
|     | 여자 | 300 | 3.30 | .40  |       |       |

#### 5.5.1.2 성별의 따른 자기조절효능감의 차이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기조절효능감에 관한 성별의 따른 차이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남학생은 3.12가 나타났고, 여학생은 3.07이 나타났으며, 유의확률은 .340의 값을 나타내어 유의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p > 0.05$ . 따라서 성별의 따른 자기조절효능감의 차이검증에 관한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

<표 7> 성별의 따른 자기조절효능감의 차이

| 구분          | 성별 | N  | 평균   | 표준편차 | t    | P(양쪽) |
|-------------|----|----|------|------|------|-------|
| 자기조절<br>효능감 | 남자 | 55 | 3.12 | .42  | .956 | .340  |

|  |    |     |      |     |  |  |
|--|----|-----|------|-----|--|--|
|  | 여자 | 300 | 3.07 | .34 |  |  |
|--|----|-----|------|-----|--|--|

#### 5.5.1.3 성별의 따른 과제난이도의 차이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과제난이도의 관한 남학생과 여학생 따른 차이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남학생은 3.12가 나타났고, 여학생 3.09가 나타났다, 유의확률 값이 .485로 나타났다. 따라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과제나 목표에 대한 도전적이며, 몰입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8> 성별의 따른 과제난이도의 차이

| 구분    | 성별 | N   | 평균   | 표준편차 | t    | P(양쪽) |
|-------|----|-----|------|------|------|-------|
| 과제난이도 | 남자 | 55  | 3.12 | .41  | .698 | .485  |
|       | 여자 | 300 | 3.09 | .33  |      |       |

#### 5.5.1.4 성별의 따른 자기효능감 전체의 차이

성별의 따른 자기효능감 전체의 차이검증에서 나타난 결과는 <표 9>와 같다. 자기효능감 전체에서 남학생은 3.25가 나타났고, 여학생은 3.16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유의확률 값이 .03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의 따른 자기효능감 전체의 차이는  $p < 0.05$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세 개의 하위변인 가운데 자신감의 차이에서 나타난 유의미한 결과가 전체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외의 변인들에게서 나타난 평균의 결과가  $p < 0.05$  내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확률을 나타내기는 하였지만 자기효능감 전체의 결과에 작용되지는 않았다.

<표 9> 성별의 따른 자기효능감 전체의 차이

| 구분          | 성별 | N   | 평균   | 표준편차 | t     | P(양쪽) |
|-------------|----|-----|------|------|-------|-------|
| 자기효능감<br>전체 | 남자 | 55  | 3.25 | .36  | 2.173 | .030  |
|             | 여자 | 300 | 3.16 | .29  |       |       |

#### 5.5.2 학년의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 5.5.2.1 학년의 따른 자신감의 차이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신감에 관한 학년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는 3학년이 3.43으로 나타났고, 2학년은 3.25가 나타났으며, 1학년은 3.31로 나타났다.

3학년들의 자신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각 학년의 평균의 따라 유의확률을 값은 .00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년의 따른 자신감의 차이가  $p < 0.05$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게 하였다.

<표 10> 학년에 따른 자신감의 차이

| 구분  | 학년  | N   | 평균   | 표준편차 | F     | P(양쪽) |
|-----|-----|-----|------|------|-------|-------|
| 자신감 | 1학년 | 105 | 3.31 | .40  | 6.206 | .002  |
|     | 2학년 | 128 | 3.25 | .40  |       |       |
|     | 3학년 | 122 | 3.43 | .43  |       |       |
|     | 합계  | 355 | 3.33 | .42  |       |       |

#### 5.5.2.2 학년의 따른 자기조절효능감의 차이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효능감의 하위 변인인 자기조절효능감에 관한 학년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는 1학년이 3.07을 나타냈고, 2학년은 3.04를 나타냈으며, 3학년은 3.12를 나타냈다. 유의확률은 .178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년에 따른 자기조절효능감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 즉 자기조절효능감의 기능인 어떤 일에 대한 상황의 대처 능력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 발휘되는 자기조절전략 등은 학년 또는 학령에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11> 학년에 따른 자기조절효능감의 차이

| 구분          | 학년  | N   | 평균   | 표준편차 | F     | P(양쪽) |
|-------------|-----|-----|------|------|-------|-------|
| 자기조절<br>효능감 | 1학년 | 105 | 3.07 | .37  | 1.733 | .178  |
|             | 2학년 | 128 | 3.04 | .36  |       |       |
|             | 3학년 | 122 | 3.12 | .34  |       |       |
|             | 합계  | 355 | 3.08 | .36  |       |       |

#### 5.5.2.3 학년의 따른 과제난이도의 차이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가운데 과제난이도에 관한 학년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는 <표 12>와 같다. 3학년은 3.13가 나타났고, 2학년은 3.11로 나타났으며, 1학년은 3.04로 나타났다.

유의확률 값은 .142로 유의수준을 벗어난 결과가 나타났다  $p > 0.05$ .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과제의 대한 몰입이나 도전의식에 대해서 학년이나 학령에 차이가 없음이 나타났다고 해석 할 수 있다.

<표 12> 학년에 따른 과제난이도의 차이

| 구분    | 학년  | N   | 평균   | 표준편차 | F     | P(양쪽) |
|-------|-----|-----|------|------|-------|-------|
| 과제난이도 | 1학년 | 105 | 3.04 | .35  | 1.963 | .142  |

|  |     |     |      |     |  |  |
|--|-----|-----|------|-----|--|--|
|  | 2학년 | 128 | 3.11 | .35 |  |  |
|  | 3학년 | 122 | 3.13 | .33 |  |  |
|  | 합계  | 355 | 3.10 | .35 |  |  |

#### 5.5.2.4 학년의 따른 자기효능감 전체의 차이

<표 13>에서 알 수 있듯이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 전체의 차이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3학년은 3.23이 나타났고, 2학년은 3.13으로 나타났으며, 1학년은 3.1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의확률 값 .025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 전체의 차이는  $p < 0.05$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기능인 자신이 하고자하는 어떤 성과나 목표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신념에 대한 차이가 학년 또는 학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3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 전체의 차이

| 구분              | 학년  | N   | 평균   | 표준편차 | F     | P(양쪽) |
|-----------------|-----|-----|------|------|-------|-------|
| 자기<br>효능감<br>전체 | 1학년 | 105 | 3.14 | .30  | 3.721 | .025  |
|                 | 2학년 | 128 | 3.13 | .31  |       |       |

|  |     |     |      |      |  |  |
|--|-----|-----|------|------|--|--|
|  | 3학년 | 122 | 3.23 | .29  |  |  |
|  | 합계  | 355 | 3.17 | .302 |  |  |

### 5.5.3 전공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표 14>에서 알 수 있듯이 전공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검증 결과로 자신감에서 헤어 전공은 3.34가 나타났으며, 피부 전공은 3.29가 나타났고, 네일 전공은 3.29가 나타났다.

메이크업 전공은 3.36를 나타내어 유의확률 .609의 결과가 나타났다. 전공에 따른 자기조절효능감 차이검증 결과는 헤어 전공이 3.09가 나타났으며, 피부 전공은 3.02가 나타났고, 네일 전공은 3.06이 나타났다. 메이크업 전공은 3.11을 나타내어 전공에 따른 자기조절효능감 전체의 차이는 3.08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의확률 값이 .398로 나타나게 하였으며 따라서 전공에 따른 자기조절효능감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

전공에 따른 과제난이도와의 차이검증 결과는 헤어 전공은 3.14가 나타났으며, 피부 전공은 3.08가 나타났고, 네일 전공은 2.98가 나타났다. 메이크업 전공은 3.11를 나타내어 전공에 따른 과제난이도 전체에서 3.10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유의확률 .064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 전체에 관한 유의확률 .240을 나타나게 하였다. 따라서 전공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변인과 자기효능감 전체에 관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

<표 14> 전공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 구분          | 전공   | N   | 평균   | 표준편차 | F     | P(양쪽) |
|-------------|------|-----|------|------|-------|-------|
| 자신감         | 헤어   | 148 | 3.34 | .47  | .610  | .609  |
|             | 피부   | 64  | 3.29 | .37  |       |       |
|             | 네일   | 45  | 3.29 | .37  |       |       |
|             | 메이크업 | 98  | 3.36 | .38  |       |       |
|             | 합계   | 355 | 3.33 | .42  |       |       |
| 자기조절<br>효능감 | 헤어   | 148 | 3.09 | .35  | .989  | .398  |
|             | 피부   | 64  | 3.02 | .33  |       |       |
|             | 네일   | 45  | 3.06 | .37  |       |       |
|             | 메이크업 | 98  | 3.11 | .36  |       |       |
|             | 합계   | 355 | 3.08 | .36  |       |       |
| 과제<br>난이도   | 헤어   | 148 | 3.14 | .38  | 2.441 | .064  |
|             | 피부   | 64  | 3.08 | .33  |       |       |
|             | 네일   | 45  | 2.98 | .34  |       |       |
|             | 메이크업 | 98  | 3.11 | .30  |       |       |

|                 |      |     |      |     |       |      |
|-----------------|------|-----|------|-----|-------|------|
|                 | 합계   | 355 | 3.10 | .35 |       |      |
| 자기<br>효능감<br>전체 | 헤어   | 148 | 3.19 | .33 | 1.408 | .240 |
|                 | 피부   | 64  | 3.13 | .27 |       |      |
|                 | 네일   | 45  | 3.11 | .31 |       |      |
|                 | 메이크업 | 98  | 3.19 | .27 |       |      |
|                 | 합계   | 355 | 3.17 | .30 |       |      |

## 5.6 배경변인에 따른 진로결정의 차이

### 5.6.1 성별의 따른 진로결정의 차이

#### 5.6.1.1 성별의 따른 목표선택의 차이

학생들의 성별의 따른 진로결정의 하위변인인 목표선택의 차이검증 결과는 <표 15>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남학생은 3.57이 나타났고, 여학생은 3.46이 나타났다. 유의확률 값은 .139가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성별의 따른 목표선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성별에 따른 목표선택의 차이

| 구분 | 성별 | N | 평균 | 표준편차 | t | P(양쪽) |
|----|----|---|----|------|---|-------|
|----|----|---|----|------|---|-------|

|      |    |     |      |     |       |      |
|------|----|-----|------|-----|-------|------|
| 목표선택 | 남자 | 55  | 3.57 | .54 | 1.481 | .139 |
|      | 여자 | 300 | 3.46 | .49 |       |      |

#### 5.6.1.2 성별의 따른 직업정보수집의 차이

<표 16>에서 알 수 있듯이 진로결정의 하위변인인 정보수집의 관한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로 남학생이 3.34가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3.32가 나타났다. 유의확률 값은 .836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성별의 따른 직업정보수집의 차이에 관한 귀무가설은 기각 되었다.

<표16 > 성별의 따른 직업정보수집의 차이

| 구분         | 성별 | N   | 평균   | 표준편차 | t    | P(양쪽) |
|------------|----|-----|------|------|------|-------|
| 직업정보<br>수집 | 남자 | 55  | 3.34 | .53  | .207 | .836  |
|            | 여자 | 300 | 3.32 | .72  |      |       |

#### 5.6.1.3 성별의 따른 문제해결의 차이

진로결정의 하위변인인 문제해결에 관한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차이검증 결과는 <표 17>과 같다. 남학생은 3.19가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3.10이 나타

났다. 유의확률 값은 .334가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성별의 따른 문제 해결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 되었다.

<표 17> 성별의 따른 문제해결의 차이

| 구분   | 성별 | N   | 평균   | 표준편차 | t    | P(양쪽) |
|------|----|-----|------|------|------|-------|
| 문제해결 | 남자 | 55  | 3.19 | .59  | .968 | .334  |
|      | 여자 | 300 | 3.10 | .64  |      |       |

#### 5.6.1.4 성별의 따른 미래계획수립의 차이

진로결정의 하위변인인 미래계획수립에 관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검증 결과는 <표 18>과 같다. 남학생은 3.36이 나타났고 여학생은 3.20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의확률 값이 .030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의 하위변인인 목표선택, 직업정보수집, 문제해결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미래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p < 0.05$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의 미래계획수립의 관한 심리작용이나 영향력이 다르게 작용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검증결과는 <표 18>에 나타나 있다.

<표 18> 성별의 따른 미래계획수립의 차이

| 구분 | 성별 | N | 평균 | 표준편차 | t | P(양쪽) |
|----|----|---|----|------|---|-------|
|----|----|---|----|------|---|-------|

|            |    |     |      |     |       |      |
|------------|----|-----|------|-----|-------|------|
| 미래계획<br>수립 | 남자 | 55  | 3.36 | .54 | 2.185 | .030 |
|            | 여자 | 300 | 3.20 | .50 |       |      |

#### 5.6.1.5 성별의 따른 진로결정 전체의 차이

성별의 따른 진로결정 전체의 차이검증 결과는 <표 19>와 같다.

진로결정의 하위변인인 미래계획수립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그 외의 하위변인인 목표선택, 직업정보수집, 문제해결에서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검증결과가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의 진로결정 전체의 차이에 영향력이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의미 수준의 결과가 나타난 미래계획수립에 관한 진로 상담이나 준비행동 등의 피드백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탄력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표 19> 성별의 따른 진로결정의 차이

| 구분         | 성별 | N   | 평균   | 표준편차 | t     | P(양쪽) |
|------------|----|-----|------|------|-------|-------|
| 진로결정<br>전체 | 남자 | 55  | 3.37 | .41  | 1.514 | .131  |
|            | 여자 | 300 | 3.27 | .43  |       |       |

## 5.6.2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의 차이

### 5.6.2.1 학년의 따른 목표선택의 차이

진로결정의 하위변인 가운데 목표선택에 관한 학년의 따른 차이검증 결과는 <표 20>과 같다. 1학년이 3.52가 나타났으며, 2학년은 3.40이 나타났고 3학년은 3.53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의확률 .061을 나타냈다.

따라서 학년의 따른 목표선택의 차이는  $p > 0.05$  학년 또는 학령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학년의 따른 목표선택의 차이

| 구분   | 학년  | N   | 평균   | 표준편차 | F     | p    |
|------|-----|-----|------|------|-------|------|
| 목표선택 | 1학년 | 105 | 3.52 | .49  | 2.815 | .061 |
|      | 2학년 | 128 | 3.40 | .53  |       |      |
|      | 3학년 | 122 | 3.53 | .46  |       |      |
|      | 합계  | 355 | 3.48 | .50  |       |      |

#### 5.6.2.2 학년의 따른 직업정보수집의 차이

<표 21>에서 알 수 있듯이 진로결정의 하위변인인 직업정보수집에 관한 학년의 따른 차이검증 결과는 1학년이 3.42가 나타났으며, 2학년은 3.24가 나타났고 3학년은 3.32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의확률 .138을 나타냈다. 따라서 학년의 따른 직업정보수집의 차이는  $p > 0.05$ 로 귀무가설이 기각 되었다.

<표 21> 학년의 따른 직업정보수집의 차이

| 구분         | 학년  | N   | 평균   | 표준편차 | F     | p    |
|------------|-----|-----|------|------|-------|------|
| 직업정보<br>수집 | 1학년 | 105 | 3.42 | 1.00 | 1.989 | .138 |
|            | 2학년 | 128 | 3.24 | .53  |       |      |
|            | 3학년 | 122 | 3.32 | .47  |       |      |
|            | 합계  | 355 | 3.32 | .69  |       |      |

### 5.6.2.3 학년의 따른 문제해결의 차이

진로결정의 하위변인 가운데 문제해결에 관한 학년의 따른 차이검증 결과는 <표 22>와 같다. 1학년은 3.20이 나타났고, 2학년은 3.00이 나타났다.

3학년은 3.16을 나타냈으며, 이에 따라 유의확률 값이 .037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년의 따른 문제해결의 차이는  $p < 0.05$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의 하위변인인 문제해결은 직업선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들에 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생활방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요인으로서 1학년은 3.20으로 가장 높은 평균이 나타났으며, 2학년은 3.00으로 가장 낮은 평균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학교에서 진로를 결정하고 고등학교에 갓 입문한 1학년들이 전공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접하는데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이 발휘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표 22> 학년의 따른 문제해결의 차이

| 구분   | 학년  | N   | 평균   | 표준편차 | F     | p    |
|------|-----|-----|------|------|-------|------|
| 문제해결 | 1학년 | 105 | 3.20 | .71  | 3.334 | .037 |
|      | 2학년 | 128 | 3.00 | .59  |       |      |
|      | 3학년 | 122 | 3.16 | .59  |       |      |
|      | 합계  | 355 | 3.12 | .63  |       |      |

#### 5.6.2.4 학년의 따른 미래계획수립의 차이

진로결정의 하위변인인 미래계획수립에 관한 학년의 따른 차이검증 결과는 <표 23>과 같다. 1학년은 3.24가 나타났고, 2학년은 3.16이 나타났으며, 3학년은 3.26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유의확률 값이 .227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학년의 따른 미래계획수립의 차이는  $p < 0.05$  수준 내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로 본 연구자의 귀무가설은 기각 되었다. 그러나 평균값으로 3학년은 3.26이 나타났고, 2학년은 3.16이 나타나 3학년이 미래계획수립에 관한 자세 또는 인지정도가 2학년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23> 학년의 따른 미래계획수립의 차이

| 구분         | 학년  | N   | 평균   | 표준편차 | F     | p    |
|------------|-----|-----|------|------|-------|------|
| 미래계획<br>수립 | 1학년 | 105 | 3.24 | .50  | 1.490 | .227 |
|            | 2학년 | 128 | 3.16 | .53  |       |      |
|            | 3학년 | 122 | 3.26 | .49  |       |      |
|            | 합계  | 355 | 3.22 | .51  |       |      |

#### 5.6.2.5 학년의 따른 진로결정 전체의 차이

학년의 따른 진로결정 전체의 차이검증 결과는 <표 24>와 같다.

1학년이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학년은 3.2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3학년은 3.32를 나타냈으며, 이에 따른 유의확률 값이 .018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년의 따른 진로결정 전체의 차이검증 결과는  $p < 0.05$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겠다.

진로결정의 하위변인 목표선택, 직업정보수집, 문제해결, 미래계획수립 가운데 문제해결에서만 유일한 차이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로결정 전체의 차이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변인들의 유의확률이  $p < 0.05$  수준 내에는 미치지 않았으나 유의미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24> 학년의 따른 진로결정 전체의 차이

| 구분                | 학년  | N   | 평균   | 표준편차 | F     | p    |
|-------------------|-----|-----|------|------|-------|------|
| 진로결정<br>효능감<br>전체 | 1학년 | 105 | 3.34 | .47  | 4.037 | .018 |
|                   | 2학년 | 128 | 3.20 | .43  |       |      |
|                   | 3학년 | 122 | 3.32 | .37  |       |      |
|                   | 합계  | 355 | 3.28 | .43  |       |      |

### 5.6.3 전공에 따른 진로결정의 차이

#### 5.6.3.1 전공의 따른 목표선택의 차이

진로결정의 하위변인인 목표선택에 관한 전공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는 <표 25>와 같다. 헤어 전공은 3.51이 나타났고 피부 전공은 3.34가 나타났다.

네일 전공은 3.47이 나타났고, 메이크업 전공은 3.53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유의확률이 .079가 나타났다. 따라서 전공에 따른 목표선택의 차이는  $p > 0.05$ 로 해석 할 수 있으며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표 25> 전공에 따른 목표선택의 차이

| 구분   | 전공   | N   | 평균   | 표준편차 | F     | p    |
|------|------|-----|------|------|-------|------|
| 목표선택 | 헤어   | 148 | 3.51 | .51  | 2.285 | .079 |
|      | 피부   | 64  | 3.34 | .47  |       |      |
|      | 네일   | 45  | 3.47 | .52  |       |      |
|      | 메이크업 | 98  | 3.53 | .46  |       |      |
|      | 합계   | 355 | 3.48 | .50  |       |      |

### 5.6.3.2 전공의 따른 직업정보수집의 차이

<표 26>에서 알 수 있듯이 진로결정의 하위변인인 직업정보수집에 관한 전공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헤어 전공은 3.40으로 나타났다으며, 피부 전공은 3.10이 나타났다.

네일 전공은 3.32가 나타났고, 메이크업 전공은 3.34가 나타났다. 표준편차에 대한 값으로는 헤어 전공이 .77로 가장 높았으며, 메이크업이 .73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피부 전공은 .47로 가장 낮은 표준편차를 나타냈으며 각 전공의 차이검증 평균에 따른 유의확률 값이 .035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공의 따른 직업정보수집의 차이검증은  $p < 0.05$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26> 전공에 따른 직업정보수집의 차이

| 구분         | 전공   | N   | 평균   | 표준편차 | F     | p    |
|------------|------|-----|------|------|-------|------|
| 직업정보<br>수집 | 헤어   | 148 | 3.40 | .77  | 2.895 | .035 |
|            | 피부   | 64  | 3.10 | .47  |       |      |
|            | 네일   | 45  | 3.32 | .53  |       |      |
|            | 메이크업 | 98  | 3.34 | .73  |       |      |
|            | 합계   | 355 | 3.32 | .69  |       |      |

### 5.6.3.3 전공의 따른 문제해결의 차이

<표 27>에서 알 수 있듯이 진로결정의 하위변인인 문제해결에 관한 전공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헤어 전공은 3.17이 나타났으며, 피부 전공은 3.00이 나타났다. 네일 전공은 3.10이 나타났고, 메이크업 전공은 3.11이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유의확률 .369가 나타나게 하였다.

따라서 전공의 따른 문제해결의 차이검증 결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전공에 따른 문제해결의 차이

| 구분   | 전공   | N   | 평균   | 표준편차 | F     | p    |
|------|------|-----|------|------|-------|------|
| 문제해결 | 헤어   | 148 | 3.17 | .62  | 1.054 | .369 |
|      | 피부   | 64  | 3.00 | .61  |       |      |
|      | 네일   | 45  | 3.10 | .72  |       |      |
|      | 메이크업 | 98  | 3.11 | .61  |       |      |
|      | 합계   | 355 | 3.11 | .63  |       |      |

#### 5.6.3.4 전공의 따른 미래계획수립의 차이

진로결정의 하위변인인 미래계획수립에 관한 전공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헤어 전공은 3.26이 나타났으며, 피부 전공은 3.08이 나타났다.

네일 전공은 3.24가 나타났으며, 메이크업 전공은 3.23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유의확률이 .095가 나타났다. 따라서 전공에 따른 미래계획수립의 차이는  $p > 0.05$ 로 해석 할 수 있으며,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자세한 결과는 <표 28>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표 28> 전공에 따른 미래계획수립의 차이

| 구분         | 전공   | N   | 평균   | 표준편차 | F     | p    |
|------------|------|-----|------|------|-------|------|
| 미래계획<br>수립 | 헤어   | 148 | 3.26 | .51  | 2.139 | .095 |
|            | 피부   | 64  | 3.08 | .55  |       |      |
|            | 네일   | 45  | 3.24 | .47  |       |      |
|            | 메이크업 | 98  | 3.23 | .48  |       |      |
|            | 합계   | 355 | 3.22 | .51  |       |      |

### 5.6.3.5 전공의 따른 진로결정 전체의 차이

<표 29>는 전공에 따른 진로결정 전체의 차이검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다음과 같다. 헤어 전공은 3.33이 나타났고, 피부 전공은 3.13이 나타났으며, 네일 전공은 3.28이 나타났다. 메이크업 전공은 3.31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유의확률 값이 .01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공의 따른 진로결정 전체의 차이는  $p < 0.05$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결과의 대한 내용의 정리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진로결정의 하위변인인 목표선택, 직업정보수집, 문제해결, 미래계획수립 가운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하위변인은 직업정보수집이 유일 하였으나 진로결정 전체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는 직업정보수집의 결과 외에 다른 변인들 사이에서 나타난 유의확률이  $p < 0.05$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가 의미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 연구자는 사료 하는 바이다.

<표 29> 전공에 따른 진로결정 전체의 차이

| 구분         | 전공   | N   | 평균   | 표준편차 | F     | p    |
|------------|------|-----|------|------|-------|------|
| 진로결정<br>전체 | 헤어   | 148 | 3.33 | .45  | 3.643 | .013 |
|            | 피부   | 64  | 3.13 | .38  |       |      |
|            | 네일   | 45  | 3.28 | .36  |       |      |
|            | 메이크업 | 98  | 3.31 | .44  |       |      |
|            | 합계   | 355 | 3.28 | .43  |       |      |

## 5.7 배경변인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 5.7.1 성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표 30>에서 알 수 있듯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인 정보수집,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행동,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과 진로준비행동전체의 관한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정보수집의 차이는 남학생이 3.40를 나타냈고, 여학생이 3.43을 나타냈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유의확률 .741를 나타냈다. 성별에 따른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행동의 차이는 남학생이 3.19를 나타냈고, 여학생이 3.13을 나타냈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유의확률 .447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차이는 남학생이 3.02로 나타났고, 여학생이 2.93을 나타냈다.

이에 따른 결과는 유의확률 .365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전체의 차이는 남학생이 3.20을 나타냈고, 여학생이 3.16을 나타냈다. 이에 따른 결과는 유의확률 .621를 나타나게 하였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는  $p > 0.05$ 로 성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모든 하위변인과 진로준비행동 전체에 관하여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

<표 30> 성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 구분              | 성별 | N   | 평균   | 표준편차 | t     | 유의확률 |
|-----------------|----|-----|------|------|-------|------|
| 정보수집            | 남자 | 55  | 3.40 | .71  | -.330 | .741 |
|                 | 여자 | 300 | 3.43 | .70  |       |      |
| 필요한도구를<br>가추는행동 | 남자 | 55  | 3.19 | .58  | .761  | .447 |

|                  |    |     |      |     |      |      |
|------------------|----|-----|------|-----|------|------|
|                  | 여자 | 300 | 3.13 | .61 |      |      |
| 목표달성을위한<br>실천적노력 | 남자 | 55  | 3.02 | .62 | .907 | .365 |
|                  | 여자 | 300 | 2.93 | .68 |      |      |
| 진로준비행동<br>전체     | 남자 | 55  | 3.20 | .56 | .495 | .621 |
|                  | 여자 | 300 | 3.16 | .56 |      |      |

## 5.7.2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 5.7.2.1 학년에 따른 정보수집의 차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 가운데 정보수집에 관한 학년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는 <표 31>과 같다. 1학년은 3.46이 나타났고, 2학년은 3.2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3학년은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의확률 .002를 나타나게 하였으며, 이는  $p < 0.01$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표 31> 학년에 따른 정보수집의 차이

| 구분 | 나이 | N | 평균 | 표준편차 | F | p |
|----|----|---|----|------|---|---|
|----|----|---|----|------|---|---|

|      |     |     |      |     |       |      |
|------|-----|-----|------|-----|-------|------|
| 정보수집 | 1학년 | 105 | 3.46 | .68 | 6.339 | .002 |
|      | 2학년 | 128 | 3.27 | .74 |       |      |
|      | 3학년 | 122 | 3.57 | .64 |       |      |
|      | 합계  | 355 | 3.43 | .70 |       |      |

#### 5.7.2.2 학년의 따른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행동의 차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 가운데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행동에 관한 학년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는 <표 32>와 같다.

1학년은 3.16으로 나타났고, 2학년은 3.00으로 나타났으며, 3학년은 3.2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의확률 값이 .005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학년의 따른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행동의 차이는  $p < 0.05$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행동은 취업준비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노력으로 취업이나 대학진학 등의 진로에 대한 문제에 당면한 3학년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설문에 따른 조사가 성실히 이루어졌음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32> 학년에 따른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행동의 차이

| 구분         | 나이  | N   | 평균   | 표준편차 | F     | p    |
|------------|-----|-----|------|------|-------|------|
| 필요한<br>도구를 | 1학년 | 105 | 3.16 | .59  | 5.419 | .005 |

|        |     |     |      |     |  |  |
|--------|-----|-----|------|-----|--|--|
| 갖추는 행동 | 2학년 | 128 | 3.00 | .61 |  |  |
|        | 3학년 | 122 | 3.25 | .58 |  |  |
|        | 합계  | 355 | 3.14 | .60 |  |  |

#### 5.7.2.3 학년의 따른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차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 가운데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에 관한 학년 사이에 차이검증의 결과는 <표 33>과 같다.

1학년은 2.87이 나타났고, 2학년은 2.85가 나타났으며, 3학년은 3.10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006의 유의확률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년의 따른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차이는  $p < 0.05$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로 해석 할 수 있겠다.

<표 33> 학년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차이

| 구분              | 나이  | N   | 평균   | 표준편차 | F     | p    |
|-----------------|-----|-----|------|------|-------|------|
|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 | 1학년 | 105 | 2.87 | .67  | 5.209 | .006 |
|                 | 2학년 | 128 | 2.85 | .69  |       |      |
|                 | 3학년 | 122 | 3.10 | .63  |       |      |
|                 | 합계  | 355 | 2.94 | .67  |       |      |

#### 5.7.2.4 학년의 따른 진로준비행동 전체의 차이

학년의 따른 진로준비행동 전체의 차이검증의 결과는 <표 34>와 같다. 진로준비행동 전체에서 3학년은 3.30이 나타났고, 2학년은 3.04가 나타났으며, 1학년은 3.16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의확률 값은 .001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년의 따른 진로준비행동 전체의 차이는  $p < 0.01$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 전체에 관한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3학년에게서 진로준비행동 전체에 관한 가장 높은 평균이 나타났으며, 이는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표 34>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전체의 차이

| 구분            | 나이  | N   | 평균   | 표준편차 | F     | p    |
|---------------|-----|-----|------|------|-------|------|
| 진로준비 행동<br>전체 | 1학년 | 105 | 3.16 | .52  | 7.324 | .001 |
|               | 2학년 | 128 | 3.04 | .59  |       |      |
|               | 3학년 | 122 | 3.30 | .54  |       |      |
|               | 합계  | 355 | 3.17 | .56  |       |      |

### 5.7.3 전공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전공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전체와 모든 하위변인들과의 차이검증 결과는 <표 35>와 같다.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 가운데 정보수집과의 차이검증 결과는 헤어 전공에서 3.44가 나타났고, 피부 전공에서 3.49가 나타났으며, 네일 전공에서는 3.31이 나타났다. 메이크업 전공에서 3.41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유의확률 .605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전공에 따른 정보수집과의 차이에 대한 귀무가설이 기각 되었다.

전공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 가운데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행동과의 차이검증 결과로 헤어 전공은 3.10이 나타났고, 피부 전공은 3.06이 나타났으며, 네일 전공은 3.26이 나타났다.

메이크업 전공은 3.17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유의확률 .288의 결과가 나타났다. 전공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 가운데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과의 차이검증 결과로 헤어 전공은 3.00이 나타났고, 피부 전공은 2.76이 나타났으며, 네일 전공은 2.98이 나타났다.

메이크업 전공은 2.96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유의확률 111의 결과가 나타났다. 전공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전체의 차이검증 결과로 헤어 전공은 3.18이 나타났고, 피부 전공은 3.11이 나타났으며, 네일 전공은 3.19가 나타났다. 메이크업 전공은 3.18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유의확률 800의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전공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전체와 모든 하위변인들과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자의 귀무가설은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전공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 구분   | 전공 | N   | 평균   | 표준편차 | F    | 유의확률 |
|------|----|-----|------|------|------|------|
| 정보수집 | 헤어 | 148 | 3.44 | .67  | .616 | .605 |
|      | 피부 | 64  | 3.49 | .74  |      |      |

|                       |      |     |      |     |       |      |
|-----------------------|------|-----|------|-----|-------|------|
|                       | 네일   | 45  | 3.31 | .75 |       |      |
|                       | 메이크업 | 98  | 3.41 | .70 |       |      |
|                       | 합계   | 355 | 3.43 | .70 |       |      |
| 필요한<br>도구를<br>갖추는 행동  | 헤어   | 148 | 3.10 | .61 | 1.261 | .288 |
|                       | 피부   | 64  | 3.06 | .61 |       |      |
|                       | 네일   | 45  | 3.26 | .64 |       |      |
|                       | 메이크업 | 98  | 3.17 | .56 |       |      |
|                       | 합계   | 355 | 3.14 | .60 |       |      |
| 목표달성을<br>위한 실천적<br>노력 | 헤어   | 148 | 3.00 | .67 | 2.016 | .111 |
|                       | 피부   | 64  | 2.76 | .68 |       |      |
|                       | 네일   | 45  | 2.98 | .77 |       |      |
|                       | 메이크업 | 98  | 2.96 | .61 |       |      |
|                       | 합계   | 355 | 2.94 | .67 |       |      |
| 진로준비행동<br>전체          | 헤어   | 148 | 3.18 | .57 | .334  | .800 |
|                       | 피부   | 64  | 3.11 | .58 |       |      |
|                       | 네일   | 45  | 3.19 | .60 |       |      |
|                       | 메이크업 | 98  | 3.18 | .53 |       |      |
|                       | 합계   | 355 | 3.17 | .56 |       |      |

## VI. 결론 및 제언

### 6.1 결론

본 연구는 미용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서 그들의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상관관계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미용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는 앞으로의 미용교육은 물론 미용산업 분야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지각한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하위변인(㉠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과 그들의 진로결정을 있는 하위변인(①목표선택 ②직업정보수집 ③문제해결 ④미래계획수립)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자의 가설이  $p < 0.05$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로 입증되었다.

자신감과 목표선택의 상관관계는 .417, 자신감과 직업정보수집과의 상관관계는 .269, 자신감과 문제해결과의 상관관계는 .123, 자신감과 미래계획수립의 상관관계는 .3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효능감과 목표선택의 상관관계는 .389, 자기조절효능감과 직업정보수집과의 상관관계는 .268. 자기조절효능감과 문제해결의 상관관계는 .136, 자기조절효능감과 미래계획수립과의 상관관계는 .298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난이도와 목표선택의 상관관계는 .242, 과제난이도와 직업정보수집과의 상관관계는 .185, 과제난이도와 문제해결과의 상관관계는 .142, 과제난이도와 미래계획수립과의 상관관계는 .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용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진로를 결정하고 그의 따른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하는데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기효능감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과 진로준비행동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정보수집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행동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자의 가설이  $p < 0.01$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로 입증 되었다. 요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신감과 정보수집의 상관관계는 .346 자신감과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행동은 .321, 자신감과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은 .244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기조절효능감과 정보수집의 상관관계는 .308, 자기조절효능감과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행동의 상관관계는 .439, 자기조절효능감과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상관관계는 .380으로 나타났다. 과제난이도와 정보수집의 상관관계는 .231, 과제난이도와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행동과의 상관관계는 .233, 과제난이도와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과의 상관관계는 .2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긍정된 가설검증의 유의미한 결과는 미용고등학교 학생들이 느끼는 자기효능감 고취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직업전문 인재 양성으로 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식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미용전공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즉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정신은 자기효능감의 대한 자아인지가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에 따른 것이고, 자기효능감은 사회 지지도와 인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긍정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찍이 진로를 결정하여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미용전공 학생들의 미래계획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반하여 어려움을 당면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셋째 학생들이 지각한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하위변인(㉠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㉔과제난이도)은 그들의 배경변인 특성(①성별 ②학년 ③전공)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자의 가설이 부분적으로  $p < 0.05$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로 입증 되었다.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기효능감에 따른 성별의 차이에서는 자신감에서 남자는 3.51, 여자는 3.30으로  $p < 0.05$  수준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기조절효능감에서 남자는 3.12, 여자는 3.07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자기효능감 전체에서 남자는 3.25, 여자는 3.16으로  $p < 0.05$ 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에 따른 학년들 사이의 차이검증 결과는 자신감에서 3학년이 3.43, 2학년이 3.25, 1학년이 3.31로  $p < 0.05$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전체에서 3학년은 3.22, 2학년은 3.13, 1학년이 3.14로 나타났으며,  $p < 0.05$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자기조절효능감의 차이검증 결과는 3학년이 3.12, 2학년은 3.04, 1학년은 3.07로  $p > 0.05$ 가 나타났다. 과제난이도에서 3학년은 3.13, 2학년은 3.11, 1학년은 3.03으로  $p > 0.05$ 가 나타났다.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의 전공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변인과 자기효능감 전체의 차이검증 결과는  $p > 0.05$ 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전공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변인과 변인 사이가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학생들이 자각한 진로결정의 하위변인(㉔목표선택 ㉔직업정보수집 ㉔문제해결 ㉔미래계획수립)은 그들의 배경변인 특성(①성별 ②학년 ③전공)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자의 가설은 부분적으로  $p < 0.05$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로 입증 되었다. 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성별의 따른 진로결정의 하위변인인 목표선택의 차이검증 결과는 남학생은 3.57, 여학생은 3.46. 유의확률 값은 .139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의 하위변인인 정보수집의 차이검증 결과는 남학생이 3.34, 여학생은 3.32, 유의확률 값은 .836이 나타났다. 성별의 따른 진로결정의 하위변인인 문제해결의 차이검증 결과는 남학생이 3.19, 여학생은 3.10, 유의확률 값은

.334가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성별의 따른 목표선택과 정보수집, 문제해결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 되었다.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의 하위변인인 미래계획수립에 차이검증 결과는 남학생이 3.36, 여학생이 3.20, 이에 대한 유의확률 값이 .030으로 나타나  $p < 0.05$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학년의 따른 문제해결의 차이검증 결과는 유의확률 값이 .037로 나타난 것으로  $p < 0.05$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학년의 따른 진로결정의 하위변인인 미래계획수립에 차이검증 결과는 유의확률 .227로 귀무가설은 기각 되었다.

학년의 따른 진로결정 전체의 차이검증 결과는 1학년이 3.34, 2학년은 3.20, 3학년은 3.32, 유의확률 .018로 나타났다  $p < 0.05$ . 전공에 따른 진로결정의 하위변인인 직업정보수집에 차이검증 결과는 헤어 전공이 3.40, 피부전공은 3.10, 네일 전공은 3.32, 메이크업 전공은 3.34, 유의확률 값이 .035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공의 따른 직업정보수집의 차이는  $p < 0.05$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전공에 따른 진로결정 전체의 차이검증 결과는 헤어 전공이 3.33을 나타냈고, 피부 전공은 3.13, 네일 전공은 3.28, 메이크업 전공은 3.31, 유의확률은 .01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공의 따른 진로결정 전체의 차이는  $p < 0.05$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생들이 지각한 진로준비행동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정보수집,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행동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은 그들의 배경변인 특성(①성별 ②학년 ③전공)에 대해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자의 가설은 부분적으로  $p < 0.05$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로 입증 되었다. 결과의 요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인 정보수집의 유의확률 .741,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행동의 유의확률 .447,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365, 진로준비행동전체의 유의확률 .621로 성별에 따른 모든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과 전체에 관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 되었다.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 가운데 정보수집에 관한 학년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로 1학년은 3.46, 2학년은 3.27, 3학년은 3.57, 유의확률 .002가 나타났으

며,  $p < 0.01$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 가운데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행동에 관한 차이검증 결과로 1학년은 3.16, 2학년은 3.00, 3학년은 3.25, 유의확률 값으로는 .005가 나타났다. 따라서  $p < 0.05$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 가운데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에 차이검증결과는 1학년이 2.87, 2학년은 2.85, 3학년은 3.10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과는 .006의 유의확률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년의 따른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차이는  $p < 0.05$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학년의 따른 진로준비행동 전체의 차이검증 결과로 3학년은 3.30, 2학년은 3.04, 1학년은 3.16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의확률 값은 .00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p < 0.01$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전공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 가운데 정보수집과의 차이검증 결과는 유의확률 .605,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행동과의 유의확률 .288,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과의 유의확률 .111, 진로준비행동 전체의 유의확률 .800의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전공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전체와 모든 하위변인들과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자의 귀무가설은 기각된 셈이다.

이로써 본 연구의 변인들 사이의 유의한 상관관계와 부분적으로 나타난 차이의 유의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진로에 관한 성취유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서 미용고등학교를 비롯한 미용교육기관의 학생들의 사고와 심리에 적절한 격려와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6.2 제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자기효능감은 연구대상자들의 감성에 기인하는 기제로서 과제수행의 의욕이나 목표달성에 의한 성과를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해도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이러한 감성기재를 정량적 방법으로 수치화하여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의 상관관계와 차이를 부분적으로 입증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결과가 갖는 제한점이 발견되었으며,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연구자가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대한 표집에 있어서 충분하고 고른 표집이라고 하기에는 결과내용을 현실적으로 일반화시켜 적용시키는 것에 무리가 있다.

연구대상자들의 인원수가 최소한으로 미비하였으며, 특정한 전공의 연구 대상자의 수가 밀집되어 있는 현상이 짙게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와 남자의 비율이 6:1의 비율로 연구대상자들의 구성의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이 제시 될 수 있다.

둘째, 측정도구에 대한 다양성으로 본 연구의 대한 결과를 지지하지 못 했다는 점이다.

설문지를 통한 자기 답변식 조사는 측정도구에 대한 문항별 신뢰도와 타당성이 입증 되었다 하더라도 그 성향이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일반화시켜 문제에 적용하고 해결하고자 하기에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정도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보다 객관성 있는 분석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담에 의한 조사 또는 구체적인 사례연구 등 객관적인 분석이 이뤄질 수 있는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로는 연구대상의 고른 표집과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보다 더 신뢰할 수 있으며, 타당성이 검증된 연구가 이루어져 미용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과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개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강명주, 노선옥, 김은주, 김정희, 이귀영, 이영애, 정철순, 천지연, 홍수경.  
(2009). 『FACES IN MAKE UP』. 서울: 청구 문화사.
- 사사키 치카, 송유정, 오선숙, 이상은, 이영미, 이철영, 정연자. (2007) 『이미지메이킹』. 서울: 예림.
- 이영순, 한영숙, 전미향, 조미자. (2005). 『네일 관리학』 서울: 고문사.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순옥. (2007). 2년제 미용대학 교과과정과 전공교육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은. (2012). 미용계열 학과 전공 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취업 준비에 미치는 영향. 건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맹순호. (2011). 미용 산업 종사자의 멘토링 기능이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고은. (2006).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미옥. (2010). 미용사 직업에 대한 자긍심, 사회적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숙경. (2013). 여대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유림. (2012). 전문계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의 미용자격증과 교과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 비교.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경현. (2007). 헤어이미지연출시 미용서비스의 연속성 구현. 서경대학교

-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미정. (2008).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 대학교 국제 사무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동영. (1997). 父母의 養育態度와 自己效能感 및 學業成就와의 關係. 韓國敎員大學校 석사학위논문.
- 이명숙. (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정. (2007).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미용교육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2000)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민. (2004). 중학교 무용담당교사의 지도행동 유형에 따른 학생 수업 만족도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선. (2011) 미용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선택 및 진로교육 인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문주. (2008). 미용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조사 : 충청지역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화. (2003). 미용사의 이직에 대한 관리자와 종업원의 시각차이 및 이직률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혜민. (2010). 미용사의 직무만족요인과 교육개발훈련 및 이직의도의 상관관계.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효정. (2012). 직업전문학교 미용전공생의 자기효능감에 따른 수업만족도와 진로결정효능감. 숙명여자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종우. (2011). 뷰티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연구 : 헤어미용·피부미용·메이크업·네일 분야를 대상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윤정. (2012). 전문계 고등학교 미용과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비교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숙. (2013) 중학생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상담학연구』, Vol.14 No.2, [KCI등재].

이경화, 고진영, 최병연, 정미경, 박숙희. (2009). 『효과적인 교수 학습을 위한 교육심리학』. 파주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 교육 과학사.

정보연, 김은화. (2010). 피부미용실에서의 피부미용기기 사용 실태 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Vol.8 No.1. [KCI등재]

최영진. (2010). 미용관련학과 학생들의 취업의식과 학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Vol.16 No.1. [KCI등재]

박명순, 서윤경. (2009) 미용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학교 생활만족도 『한국미용예술학회지』, Vol.3 No.1.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007-79호.

한국교육개발원.(1999). 『주요 교육통계 미래 예측 연구 (고등교육 학생수 추청(2000-2009)연구보고 RR 99-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C [www.career.go.kr](http://www.career.go.kr)/모바일 [m.career.go.kr](http://m.career.go.kr)

## 2. 국외문헌

Bandura, Albert.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Bandura, Albert.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Crites, JO. (1961). A model for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8: 255-259.

## 부 록

###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미용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검사도구입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응답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빠지는 문항 없이 평소 생각이나 행동을 솔직하게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작성해주신 의견이나 개인정보는 “미용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내일에 밝은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연구자 : 지윤아

## 1. 자기효능감 척도

☞ 다음은 자기효능감(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에 대해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평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에 V표를 해주세요.

| 문<br>항 | 질 문                               | 전<br>혀<br>그<br>렇<br>지<br>않<br>다 | 그<br>렇<br>지<br>않<br>다 | 보<br>통<br>이<br>다 | 그<br>런<br>편<br>이<br>다 | 매<br>우<br>그<br>런<br>편<br>이<br>다 |
|--------|-----------------------------------|---------------------------------|-----------------------|------------------|-----------------------|---------------------------------|
| 1      |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한다.              | 1                               | 2                     | 3                | 4                     | 5                               |
| 2      | 일은 쉬운 것일수록 좋다.                    | 1                               | 2                     | 3                | 4                     | 5                               |
| 3      |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 1                               | 2                     | 3                | 4                     | 5                               |
| 4      |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 1                               | 2                     | 3                | 4                     | 5                               |
| 5      | 나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로 잡는다.    | 1                               | 2                     | 3                | 4                     | 5                               |
| 6      | 나는 어떤 일에 원인과결과를 잘 분석해 낼 수 있다.     | 1                               | 2                     | 3                | 4                     | 5                               |
| 7      | 위험적인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를 필요 이상으로 받는다.     | 1                               | 2                     | 3                | 4                     | 5                               |
| 8      | 어떤 문제에 대한 나의 판단은 대체로 정확하다.        | 1                               | 2                     | 3                | 4                     | 5                               |
| 9      |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지속 적으로 노력한다.        | 1                               | 2                     | 3                | 4                     | 5                               |
| 10     | 위험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   | 1                               | 2                     | 3                | 4                     | 5                               |
| 11     | 나는 큰 문제가 생기면 불안 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 1                               | 2                     | 3                | 4                     | 5                               |
| 12     |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 1                               | 2                     | 3                | 4                     | 5                               |
| 13     | 나는 일을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편이다              | 1                               | 2                     | 3                | 4                     | 5                               |

|    |                                            |   |   |   |   |   |
|----|--------------------------------------------|---|---|---|---|---|
| 14 | 아주 쉬운 일보다 차라리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 1 | 2 | 3 | 4 | 5 |
| 15 | 나는 부담스러운 생활에서는 우울함을 느낀다.                   | 1 | 2 | 3 | 4 | 5 |
| 16 | 나는 항상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비추어서 일의 진행 상태를 확인한다.     | 1 | 2 | 3 | 4 | 5 |
| 17 |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18 |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모든 일에서 뛰어난 것 같다.               | 1 | 2 | 3 | 4 | 5 |
| 19 |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 1 | 2 | 3 | 4 | 5 |
| 20 | 만일 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일을 선택할 것이다. | 1 | 2 | 3 | 4 | 5 |
| 21 |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 1 | 2 | 3 | 4 | 5 |
| 22 | 나는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23 |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1 | 2 | 3 | 4 | 5 |
| 24 | 좀 실수를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 1 | 2 | 3 | 4 | 5 |

## 2. 진로결정 척도

☞ 다음은 진로결정(목표선택, 직업정보수집, 문제해결, 미래계획수립)의 대해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평소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에 V표를 해주세요.

| 번<br>호 | 질 문                                       | 전<br>혀<br>그<br>렇<br>지<br>않<br>다 | 그<br>렇<br>지<br>않<br>다 | 보<br>통<br>이<br>다 | 그<br>런<br>편<br>이<br>다 | 매<br>우<br>그<br>런<br>편<br>이<br>다 |
|--------|-------------------------------------------|---------------------------------|-----------------------|------------------|-----------------------|---------------------------------|
| 1      | 내가 관심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 1                               | 2                     | 3                | 4                     | 5                               |
| 2      | 나는 선택 가능한 전공들 중에서 원하는 전공을 선택 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3      | 나의 진로목표에 대해서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 1                               | 2                     | 3                | 4                     | 5                               |
| 4      | 내가 선택한 전공과 관련하여 생기는 학업적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5      | 나는 나의 능력을 정확히 알 수 있다.                     | 1                               | 2                     | 3                | 4                     | 5                               |
| 6      | 나는 마음에 드는 직업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 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7      | 내가 선택한 전공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필요한 방법 들을 계획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8      | 나는 힘든 상황에서도 진로 목표를 위한 일들을 꾸준히 수행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9      | 나는 나에게 어떤 직업이 잘 맞는지 알 수 있다.               | 1                               | 2                     | 3                | 4                     | 5                               |
| 10     |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앞으로 10년간의 고용전망 을 알 수 있다.  | 1                               | 2                     | 3                | 4                     | 5                               |
| 11     | 나는 내가 원하는 생활 방식에 맞는 진로를 결정 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12     | 나는 이력서를 잘 준비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                                                               |   |   |   |   |   |
|----|---------------------------------------------------------------|---|---|---|---|---|
| 13 | 나는 현재의 전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전공을 바꿀 수 있다.                             | 1 | 2 | 3 | 4 | 5 |
| 14 | 나는 내가 직업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 인지 알 수 있다.                    | 1 | 2 | 3 | 4 | 5 |
| 15 |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연봉을 알아 낼 수 있다.                      | 1 | 2 | 3 | 4 | 5 |
| 16 | 나는 진로를 결정한 후, 그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 1 | 2 | 3 | 4 | 5 |
| 17 | 나는 선택한 직업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른 직업으로 바꿀 수 있다.                         | 1 | 2 | 3 | 4 | 5 |
| 18 | 진로 목표를 달성 하기위해 희생 할 수 있는 것과 희생할 수 없는 것을 구분 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19 |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그 분야의 종사자를 찾아가 질문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 1 | 2 | 3 | 4 | 5 |
| 20 | 나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 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21 |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과 관련 있는 기관이나 기업을 찾아낼 수 있다.                        | 1 | 2 | 3 | 4 | 5 |
| 22 | 나는 내가 원하는 생활 방식을 정확히 알 수 있다.                                  | 1 | 2 | 3 | 4 | 5 |
| 23 | 나는 대학이나 전문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 1 | 2 | 3 | 4 | 5 |
| 24 | 나는 취업을 위한 면접을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25 | 나는 처음의 선택이 불가능 할 경우를 대비해 합리적인 대안이나 다른 진로를 알아 낼 수 있다.          | 1 | 2 | 3 | 4 | 5 |

### 3. 진로준비행동 척도

☞ 다음은 진로준비행동(정보수집,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행동,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에 대해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평소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에 V표를 해주세요.

| 문<br>항 | 질 문                                                                                          | 전<br>혀<br>그<br>렇<br>지<br>않<br>다 | 그<br>렇<br>지<br>않<br>다 | 보<br>통<br>이<br>다 | 그<br>런<br>편<br>이<br>다 | 매<br>우<br>그<br>런<br>편<br>이<br>다 |
|--------|----------------------------------------------------------------------------------------------|---------------------------------|-----------------------|------------------|-----------------------|---------------------------------|
| 1      |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2      |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3      |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선생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4      |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팸플렛 등을 구입하거나 읽어보았다.                                 | 1                               | 2                     | 3                | 4                     | 5                               |
| 5      |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교육기관 혹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책자 또는 팸플렛 등을 구입하거나 읽어보았다. | 1                               | 2                     | 3                | 4                     | 5                               |
| 6      |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거나 혹은 그 같은 방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7      |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TV프로그램, 전시회, 설명회 등을 시청하거나 참관한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                                                                                              |   |   |   |   |   |
|----|----------------------------------------------------------------------------------------------|---|---|---|---|---|
| 8  |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                                    | 1 | 2 | 3 | 4 | 5 |
| 9  |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10 |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11 |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12 |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진로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카운슬링 센터나 그 밖의 상담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13 |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14 |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그 준비에 필요한 교재, 또는 참고서적, 또는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 1 | 2 | 3 | 4 | 5 |
| 15 |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미 구입한 교재, 또는 참고서적, 또는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가지고 진로 준비를 하고 있다 | 1 | 2 | 3 | 4 | 5 |
| 16 |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학원 등에 다니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거나 할 것이다.                        | 1 | 2 | 3 | 4 | 5 |

|    |                                                                                         |   |   |   |   |   |
|----|-----------------------------------------------------------------------------------------|---|---|---|---|---|
| 17 | 나는 내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취업방법, 보수, 승진제도, 전망)를 수집하였거나 혹은 그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 1 | 2 | 3 | 4 | 5 |
| 18 |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 1 | 2 | 3 | 4 | 5 |

♣ 다음은 위의 설문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표를 해주세요.

1. 나의 전공은?

- ① 헤어                      ② 피부                      ③ 네일                      ④ 메이크업

2. 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3. 나의 학년은?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ABSTRACT

Beauty and a sense of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s prepare for  
the course and its impact on behaviour and career decisions

Chi, yun-a

Major in Hair Design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beauty of their high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making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o reveal any influence purpose.

The beauty of high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such a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s about career choices and satisfaction with problems and seek to improve the significance of the direction of the left parties. In this study, two vocational high schools located in Seoul, where the beauty an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at two locations in the Chungcheong and beauty students, 1, 2, 3 year target of 380 peopl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Beauty and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s for higher phase of the beauty industry, which was a big role in what we would all admit that. However, many current students and willingness to work on the transition to another job or career after high turnover in the industry is continuing shortages. This phenomenon is low awareness about cosmetic

majors who have studied and socially to support accounts for the low approval ratings. Recognize the beauty of this community who majors for careers in the immature stage for major cosmetic negative perceptions high school students to inculcate the idea that a sufficient condition, which affects students' self-efficacy.

What is self-efficacy, Ability of any particular action in a given situation or for a personal judgment or belief as to the meaning of an individual's behavioral objectives, intentions and expectations affect performance, and predict a variety of behavioral and academic achievement, exercise area, performing health-related behaviors day-to-day decision-making in a variety of areas such as been identified related to the performance (Kim Djinsuk, 2013, p.1348).

Major research papers in the field of self-efficacy on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awareness are constantly being released, regardless. In the first place of educa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that I think it is in the minds of consumers. It is also working on the curriculum and students' self-efficacy are not independent . In this study,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 and said the study variables and differences in background factors and variables for the effect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reparation of the action research experience of beauty, partly showed significant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of beauty school students to increase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s that can serve as the basic data would expect to see Korea.

[Key words] beauty school,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mak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ademic achievement, social approval rating, decision.